



미국 재정절벽 협상 난항에도 합의 가능성 제기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1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안한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힘.

- 12월 14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부유층 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오바마 정부가 재정지출 삭감액을 1조 2,000억 달러로 조정하는 경우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받아들이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함.
- 1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회동에서 부유층 증세의 기준을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에서 40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타협안을 제안하고 재정지출 삭감 규모를 향후 10년간 1조 4,000억 달러에서 1조 2,000억 달러로 조정하겠다고 밝힘.
- 그러나 베이너 의장이 자신의 수정안을 고수하면서 의회의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너 의장의 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.

■ 한편, 베이너 하원의장이 부유층 증세에 처음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었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간의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각자의 타협안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.

- 베이너 하원의장이 부유층 증세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, 민주당 펠로시 의원도 베이너 의장의 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등 재정절벽 문제를 피하기 위한 양당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도 사실임.
- 로이터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유층 증세의 기준을 연 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.

(Reuters등, 12/18)